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둡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은행

Jean Sibelius Valse triste, op. 44 시벨리우스 슬픈 왈츠, 작품번호 44	Jean Sibelius Violin Concerto, op. 47, d minor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작품번호 47	Jean Sibelius Symphony No. 5, op. 82, E Flat Major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5번 내림마장조, 작품번호 82
--	---	--

시벨리우스 특별 콘서트

지휘
장구오용

Sibelius

바이올린
송지원

10. 16 Thu
—
7:30 PM
—

LOTTE CONCERT HALL

Special

SYMPHONY
SONG
SHINIK HARM

후원 하나은행 NOROO EG 주식회사 이자 POONGSAN TSE FST SEBONG GOLFZON DSK 화광교역(주)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문형주

부이사장

안정근

감사

김일규

이사

문형주

안정근

김일규

송백규

이경혜

이주현

김희련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구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2024~2025시즌 연회원 후원자 명단

마에스트로 Circle

하나은행

베토벤 Circle

엔피코리아

하이든 Circle

고윤영

마스터즈 Circle

풍산

장원기

김종혁

신갑순

이근혁

계양 수치과

말리 Circle

세봉

쇼팽 Circle

문형주

이숙희

에프에스티

김성렬

티에스이

백방미

브람스 Circle

디에스케이

모차르트 Circle

GFS

김은주

골프존

이용돈

권영성

이미영

브루크너 Circle

김석수

박선주

최상욱

신승일

김종훈

김영기

슈베르트 Circle

김창석

김기태

한문성

이경혜

김소정

윤정웅

박진형

면사랑

유소정

세아제강

박지윤

영엔진세무법인

한정숙

장윤정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2014년 8월, 지휘자 함신익은 후원자, 음악가들과 더불어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를 딴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을 창단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해온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 주도 오케스트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지휘자 함신익은 KBS교향악단, 대전시향 및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거쳐 함신익과 심포니 송 창단 이후에도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심포니 송은 뛰어난 연주력, 창의적인 프로그램, 광범위한 사회공헌 연주 등 차세대 오케스트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발전하며 각계각층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10년도 우리나라 오케스트라의 발전을 꿈꾸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응원하는 후원자들이 함께 발맞추어 이뤄갈 것입니다.

MISSION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한다.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로 자리하여 지역사회를 활기차게 한다.

VISION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연주자로서 최대 5년을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한다.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한 최상의 연주로 관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 유의미한 해외 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를 리딩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VALUE

- 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한국 메세나 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Sibelius Special

시벨리우스 특별 콘서트



Jean Sibelius
1865–1957

Valse triste, op. 44

슬픈 왈츠, 작품번호 44

객원지휘 장 구오용

Violin Concerto in d minor, Op. 47

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작품번호 47

I. Allegro moderato	조금 빠르게
II. Adagio di molto	매우 느리게
III. Allegro ma non tanto	빠르게, 그러나 지나치지 않게
바이올린 송지원	

Intermission

Symphony No.5 in E♭ Major, Op. 82

교향곡 제 5번 내림마장조, 작품번호 82

I. Tempo molto moderato	매우 보통의 빠르기로
II. Andante mosso, quasi allegretto	생기 있고 경쾌하게
III. Allegro molto	아주 빠르게



심포니 송의 연주자들

예술감독	함신익				
객원지휘	Zhang Guoyong				
바이올린	송지원 박지현 박진형 강은실 김은지 오하은 강지영 강현지 김민주 김세은 김하늘 박윤정 박지윤 박현후 선유란 안휘윤 여소흔 윤태영 이예원 이지현 장민주 정예린 조정민 최종은 최진기 황나경				
비올라	한지윤	송수민	안예림	유시온	장윤정
	최지혜	Bayarbat Khulan			
첼로	권혜림	김혜영	장지혜	정다인	정혜슬
	조아진	최 영	최지아		
더블베이스	고부현	정두웅	김가은	김혜린	이현지
플루트	김성찬	유민아			
오보에	김소정	김우영			
클라리넷	조종현	이나원			
바순	김윤지	고경호			
호른	김효정	조종현	김보람	주혜준	
트럼펫	이진규	이혜진	조은별		
트럼본	김주형	김재원	김지섭		
팀파니	한호진				
크리에이티브 팀	신현숙	구현정	김소정	유소정	이수민
					이창훈

* 악장 ※ 명단은 악장/수석/부수석 외에는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지휘자

장 구오용

Zhang Guoyong

장 구오용은 지휘자이자 매력적인 음악 교육자이다. 상하이 음악원 지휘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귀양 교향악단과 칭다오 교향악단의 음악 감독을 겸임하고 있다. 또한 상하이 음악가 협회와 중국 음악가 협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장 구오용은 상하이 음악원에서 지휘 공부를 시작했으며, 저명한 중국 지휘자 황사오퉁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1993년 국가 장학금을 수여받아 모스크바 국립 차이콥스키 음악원에서 4년간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저명한 지휘자 게나디 로즈데스트벤스키의 지도 아래 지휘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국내외 유명 오페라 극장과 오케스트라와 협업하며 수많은 호평을 받은 공연을 이끌어왔다.

최근 몇 년간 그는 국가 대표로 초청되어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여러 국가/지역과의 중요한 국제 외교 문화

행사에 참여했다.

2006년 그는 스페인 제8회 카다케스 국제 지휘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았다. 2014년에는 중국 국립공연예술센터 오케스트라(중국 NCPA 오케스트라)의 HDMI 오페라 영화 <카르멘>과 <릭샤우 보이>를 지휘하여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는 언론에 널리 보도되었다. 이듬해에는 NCPA 오케스트라의 이탈리아 투어에 합류하도록 초청받았고, 2016년에는 중국 필하모닉 오케스트라(CPO)와 협력하여 러시아 데뷔 공연을 성사시켰다.

게나디 로즈데스트벤스키 마에스트로는 한 때 음악 평론가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나는 모스크바 국립 음악원 역사상 장 구오용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오케스트라에서도 항상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Q 심포니 송의 첫인상

A 제가 처음으로 Symphony S.O.N.G과 함께 작업했을 때부터 그들의 음악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단원들이 젊기 때문에 다른 많은 프로 오케스트라와는 차별화된 신선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각 작품 속의 특징이나 이야기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시벨리우스는 핀란드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작곡가 중 한 명입니다. 핀란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저는 몇 년 전 핀란드의 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일할 때 시벨리우스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나라의 자연과 평온함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20번 넘게 핀란드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겨울이 매우 길고, 태양은 드물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벨리우스의 음악 안에는 차가움과 어두움이 느껴집니다. 또한, 핀란드는 작은 나라로 역사 속에서 스웨덴과 러시아에 여러 차례 정복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음악 안에는 민족적 저항의 기운도 담겨 있습니다. 시벨리우스의 음악을 연주하거나 감상할 때는 반드시 ‘우수(melancholy)’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합니다.

Q 이번 심포니 송과의 협연에 대한 기대와 준비

A 그들이 다른 어떤 프로 오케스트라처럼 리허설 시작 전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벨리우스 교향곡 5번은 한국이나 중국에서 그다지 자주 연주되는 ‘대중적인’ 곡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청중은 음악적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공연장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분명히 느끼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Q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상당히 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휘자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은?

A 저는 매우 경험 많은 지휘자이자 상하이 음악원 교수로서 젊은이들과 어떻게 함께 일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음악에 더욱 몰입하고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사흘 간의 집중적인 노력 끝에 완벽한 연주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바이올린 —

송 지 원



©Jino Park

SONGJIWON

심포니 송의 첫인상

합신익 선생님의 카리스마와 리더십, 그리고 열정이 가득한 연주자들로 이루어진 단체라는 점이 첫인상부터 특별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콩쿠르 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데, 가장 인상 깊었던 콩쿠르는 무엇인가요?

레오플트 모차르트 콩쿠르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시작한 이래 많은 가르침과 나름의 고민을 거듭했던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을 파이널곡으로 연주했는데요.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도 어떻게 연주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무대에서는 모든 것을 잊고 자유롭게 연주했습니다. 다행히 그 무대가 좋은 결과로 이어져 감사하고 벅찼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심포니 송과의 협연에 대한 기대와 준비

심포니 송과의 협연은 늘 기대됩니다. 약 2년 만에 다시 함께 연주하게 되어 더욱 반갑고 설렙니다.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던 협주곡을 심포니 송과 함께 어떻게 만들어갈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주 계획

10월 마지막 주부터 서울국제음악제에 참여하며, 11월 6일 폐막 음악회에 서는 존경하는 비올리스트 김상진 교수님, 그리고 서울국제음악제 오케스트라와 함께 부르흐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Jean Sibelius

Valse triste, Op.44

시벨리우스

슬픈 왈츠, Op.44

〈슬픈 왈츠〉는 1903년 극음악 『쿠올레마(Kuolema, 죽음)』를 위해 작곡된 곡으로, 후에 독립 연주용으로 편곡되어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 짧지만 강렬한 정서를 담아낸 이 곡은, 왈츠라는 춤곡의 형식을 차용하면서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인간적 비애를 그려낸다. 피아니시모로 시작하는 왈츠 선율은 꿈결처럼 아련하게 울려 퍼지며, 점차 고조되는 과정 속에서 불안과 절망이 스며든다. 음악은 극적인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지만, 곧 사라지듯 소멸하며 곡은 조용히 끝맺는다. 이는 죽음과 삶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듯한 인상을 남기며, 시벨리우스 특유의 간결하면서도 깊은 표현력이 잘 드러난다.

Valse triste ("Sad Waltz"), composed in 1903 as part of the incidental music for the play Kuolema ("Death"), later gained immense popularity as an independent concert piece. In this short but poignant work, Sibelius transforms the familiar waltz into an elegiac meditation on mortality.

The opening theme emerges softly, almost dreamlike, gradually intensifying toward a climax filled with unease and despair. Yet the music fades away at the end, leaving a haunting sense of transience. This piece epitomizes Sibelius's gift for evoking profound emotion with striking economy of means.

Jean Sibelius

Violin Concerto in d minor, Op.47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작품번호 47

시벨리우스의 유일한 협주곡인 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는 1904년 초연되었으며, 작곡가가 젊은 시절부터 꿈꾸었던 바이올리ニ스트로서의 열망이 투영된 작품이다. 그는 평생 바이올린에 대한 애착을 간직했고, 이 곡은 그가 바이올리ニ스트로 이루지 못한 꿈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1905년에 대대적인 개정을 거쳐 오늘날 연주되는 판본이 탄생했다.

I. Allegro moderato

1악장은 고요한 현악 반주 위에 바이올린 독주가 신비롭게 등장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후 독주는 마치 즉흥적인 기교와 서정적 선율을 오가며 곡 전체를 주도한다. 전통적인 협주곡 형식을 따르면서도, 독주 바이올린이 끊임없이 오케스트라 위에 군림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악장 중반부의 카덴자는 오히려 협주곡 형식에서 발전부 역할을 담당하는 독창적 시도로 주목된다.

[1악장]

II. Adagio di molto

2악장은 시벨리우스 특유의 복구적 서정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낸 부분으로, 깊고 차분한 선율이 오케스트라 위에 펼쳐진다. 바이올린은 마치 인간의 목소리처럼 울부짖고 속삭이며, 청중을 내면적 고백의 세계로 인도한다.

III. Allegro ma non tanto

마지막 3악장은 격렬한 리듬과 춤곡적인 요소가 지배하는 장면이다. 독주 바이올린은 현란한 아르페지오와 더블 스텁을 구사하며, 오케스트라와 긴박하게 대립한다. 핀란드 민속 무용의 활력을 연

Sibelius's Violin Concerto in d minor, Op.47, is his only concerto, premiered in 1904 and revised in 1905. The work reflects the composer's unfulfilled dream of becoming a violinist, channeling his lifelong attachment to the instrument into a piece that has become one of the cornerstones of the violin repertoire.

I. Allegro moderato

The first movement opens with the solo violin entering mysteriously over hushed strings. The soloist dominates throughout, weaving between dazzling virtuosity and lyrical introspection. Remarkably, the cadenza functions as a developmental core, a bold departure from traditional concerto form.

II. Adagio di molto

The slow movement unfolds as one of Sibelius's most heartfelt utterances. The violin sings with a voice both human and transcendent, evoking a deep northern melancholy and an intimate world of confession.

III. Allegro, ma non tanto

The finale brims with rhythmic

상시키는 이 악장은, 독주자의 기교와 작품의 드라마가 결합된 화려한 종결을 만들어낸다.

[3악장]

drive and dance-like vitality, often compared to a rustic Finnish dance. The violin dazzles with perpetual motion and double stops, culminating in a brilliant conclusion where virtuosity and folk spirit merge.

Jean Sibelius

Symphony No.5 in E♭ Major, Op.82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5번 내림마장조, 작품번호 82

시벨리우스(1865-1957)의 교향곡 제5번은 1915년 핀란드 대종교 축일인 '시벨리우스의 50세 생일'을 기념하여 작곡가 자신이 지휘한 초연으로 세상에 나왔다. 그는 이 곡을 두 차례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오늘날 우리가 듣는 최종판은 1919년에 완성되었다. 핀란드의 광활한 자연과 민족적 정체성을 담아낸 이 교향곡은, 시벨리우스의 음악 언어가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전적 형식을 넘어선 독창적 구성을 통해 20세기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I. Tempo molto moderato

1악장은 부드러운 호른의 팡파르로 시작되며, 마치 핀란드 대자연의 아침을 열어젖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주제는 점차 확장되어 활력을 얻고, 서정적인 선율과 역동적 리듬이 교차하며 독특한 긴장과 해방을 만들어 낸다. 특히 음악이 갑작스레 변주와 전환을 거듭하는 방식은, 베토벤적 발전기법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시벨리우스 특유의 유기적 구조미를 보여준다.

Jean Sibelius (1865–1957) composed his Symphony No.5 in E-flat major in 1915, premiering it himself on his 50th birthday. He later revised the work twice, with the definitive version completed in 1919. This symphony embodies both the grandeur of the Finnish landscape and Sibelius's mature symphonic voice, achieving an organic unity that transcends classical models while opening new horizons for the 20th-century symphony.

[4악장]

II. Andante mosso, quasi allegretto

2악장은 소박한 주제 위에서 변주가 이루어지는 변주곡 형식으로, 목관과 현악이 교차하며 대화를 나눈다. 따뜻하면서도 은근한 긴장감을 잃지 않는 이 악장은, 단순한 주제가 점차 확장되어 전체를 지탱하는 힘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특징적이다.

[2악장]

III. Allegro molto

마지막 3악장은 시벨리우스 교향곡 중 가장 유명한 결말을 담고 있다. 목관의 경쾌한 선율 위에 점차 긴박함이 쌓이며, 웅대한 '백조 주제'가 호른에 의해 선율적으로 제시된다. 이 주제는 마치 북유럽의 하늘을 비상하는 백조의 비행을 연상시키며, 교향곡 전체의 정점을 이루는 순간이다. 마지막은 여섯 번의 거대한 종지 화음으로 마무리되는데, 이는 고전 교향곡 전통 속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렬한 종결로, 청중에게 압도적인 여운을 남긴다.

[3악장]

시벨리우스의 음악은 북유럽 자연의 투명한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담아내며, 인간 내면의 고독과 환희를 거대한 서사 속에 녹여냈다. 교향곡의 장엄함, 협주곡의 내밀한 고백, 그리고 짧지만 인상적인 관현악 소품이 하나로 어우러져 그의 음악 세계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이번 무대를 통해 청중은 시벨리우스가 남긴 예술적 유산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 쉬며 깊은 울림을 주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I. Tempo molto moderato
The symphony opens with noble horn calls, evoking the dawn of the Finnish wilderness. Themes expand dynamically, with lyrical melodies and driving rhythms interwoven in constant transformation. The movement recalls Beethovenian development, yet with Sibelius's own organic sense of growth and renewal.

**II. Andante mosso,
quasi allegretto**
The second movement unfolds as a set of variations on a simple, folk-like theme. Dialogue between woodwinds and strings creates a warm yet subtle tension, showing how modest material can evolve into something monumental.

III. Allegro molto
The finale features the celebrated "swan theme" in the horns, inspired by the sight of swans in flight over a Finnish lake. This soaring idea crowns the symphony, culminating in six monumental chords that close the work with unprecedented power. The ending remains one of the most striking in the symphonic repertoire.

Sibelius's music captures both the luminous clarity and the shadows of the Nordic landscape, weaving solitude and exultation into a grand narrative. The majesty of his symphonies, the intimate confession of his concerto, and the poignant brevity of his orchestral miniatures together reveal the breadth of his musical vision. Through this performance, audiences are reminded that Sibelius's artistic legacy continues to breathe and resonate with profound vitality even today.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합신의과 심포니 송 마스터즈 시리즈 IX

Sir Stephen Hough
AGATA a Basque Fantasy
for Orchestra

스티븐 허프 경
오케스트라를 위한 바스크 환상곡 '아가타'

Edvard Grieg
Piano Concerto,
op. 16, a minor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번호 16

Sir Stephen Hough
Piano Concerto 한국 초연

스티븐 허프 경
피아노 협주곡

Sir
Stephen
Hough
Plays

피아노
스티븐 허프 경

Grieg & Stephen Hough

11. 22 Sat

7:30 PM

LOTTE
CONCERT HALL

SEBONG DSK®와 함께하는 합신의과 심포니 송 마스터즈 시리즈 X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9 in d minor,
op. 125 'Choral'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라단조, 작품번호 125 '합창'

Johann Sebastian Bach
Christmas Oratorio
BWV 248, Part 6

바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BWV 248

Arcangelo Corelli
Concerto Grosso in g minor,
op. 6, No. 8 (Christmas Concerto)

코렐리
크리스마스 협주곡 제 8번 사단조, 작품번호 6

테너 이명현

소프라노 김준영

베이스 정인호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The Sound of 'JOY'

12. 18 Thu

7:30 PM

LOTTE
CONCERT HALL

송년 음악회

지휘 합신의
SYMPHONY SONG SHINIK HABN

2026년 마스터즈 시리즈 회원권 구매 안내

회원권 구매 특별할인

Season Pass
Special Discount

2026 시즌패스
2026 Season Pass

조기구매 할인 혜택

※ VIP석은 100석 한정

10월 31일까지 구매시	VIP석	960,000원 → 672,000원
	R석	800,000원 → 560,000원
	S석	560,000원 → 392,000원
	A석	400,000원 → 280,000원

11월 30일까지 구매시	VIP석	960,000원 → 720,000원
	R석	800,000원 → 600,000원
	S석	560,000원 → 422,000원
	A석	400,000원 → 300,000원

12월 31일까지 구매시	VIP석	960,000원 → 768,000원
	R석	800,000원 → 640,000원
	S석	560,000원 → 448,000원
	A석	400,000원 → 320,000원

학생 특별 지원 할인 100석 한정 (학생 인증 필수)	A석	400,000원 → 200,000원
	B석	240,000원 → 100,000원

티켓 구매 요령

① 전화구매
02-549-0046

② e-mail
management@symphonysong.com

③ 우편 제출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홍은동,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심포니 송



시즌패스

성명

연락처

E-mail

등급

R석

S석

A석

수령 방식

현장수령(추천)

자택 또는 회사

주소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6-49104 (심포니송)

심포니 S.O.N.G 법인/개인후원 안내



구분	연회비	예우 및 혜택	공통 예우
마에스트로	3억 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연주* 6회 제공· 2025년 시즌패스- R석 40매 증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레터 및 공연 소식 제공·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복 후원자 명단 게재·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소장용 공연 실황 음원 영상 증정· 마에스트로 향신익 기업방문 강연·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복 전면 광고· 추가 구매 티켓 10% 할인
마스터즈	1억 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연주* 2회 제공· 2025년 시즌패스- R석 30매 증정	
말러	5,000만 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연주* 1회 제공· 2025년 시즌패스- R석 20매 증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구매 티켓 10% 할인 <p>*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p>
브람스	3,000만 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악 연주 2회 제공· 2025년 시즌패스- R석 12매 증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복 후원자 명단 게재·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추가구매티켓 10% 할인
브루크너	2,000만 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악 연주 1회 제공· 2025년 시즌패스- R석 8매 증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복 후원자 명단 게재·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추가구매티켓 10% 할인 <p>* 하이든은 제외</p>
슈베르트	1,000만 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악 연주 1회 제공· 2025년 시즌패스- R석 4매 증정	
베토벤	500만 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시즌패스- R석 2매 증정	
쇼팽	300만 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시즌패스- S석 2매 증정	
모차르트	100만 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시즌패스 4회- A석 2매 증정	
하이든	1만 원 이상		



-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 가능
-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후원회 수시 가입 가능

Enabling Tomorrow's Semiconductor

www.tse21.com

@life.tse

TSE

… FA & BIO분야 …

글로벌종합 기술기업

이차전지장비, 디스플레이장비, 리니어시스템, 물류자동화 로봇, 산업용 및 의료용 레이저
대한민국 장비산업분야 및 바이오 보툴리눔독소제제 미래에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Display Secondary Battery Knowledge
주 디에스케이
www.dsk.co.kr



보툴리눔독소제제 PROTOXIN,
필러, 바이오베터



Medical laser equipment and
Industrial laser application systems

GLOBAL GOLF PLATFORM COMPANY GOLFZON NEWDIN GROUP

골프존뉴딘그룹은
'새로움과 즐거움, 유익함의 창출'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웃·사회와 함께 동행하며
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GOLFZON NEWDIN GROUP



GOLFZON

GOLFZON
COMMERCE

GOLFZON
COUNTY

GOLFZON
GDR ACADEMY

GOLFZON
DECA



NEWDIN
CONTENTS



GOLFZON
CM

GOLFZON
AMERICA

GOLFZON
CHINA

GOLFZON
VIETNAM

GOLFZON
JAPAN



NEWDIN
PASTEL



PANAMA GEISHA

콜드브루 커피원액 출시

'신의커피'로 불리는 최상급 파나마 게이샤 커피를
핸디엄 콜드브루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PANAMA
GEISHA

더 알아보기

HANDIUM

핸디엄은 자체 개발 기술로 프리미엄 커피 원액을 제조하는 콜드브루 전문 브랜드입니다.

콜드브루 커피원액
케냐콜드브루 커피원액
예가체프콜드브루 커피원액
다크 블렌드에스프레소 커피원액
디카페인

온라인 스토어

www.handium.co.kr

고객센터

1599-2681 (홈페이지 실시간 대화)

주요 판매처

이마트, 쿠팡, 비마트(배달의 민족), 카카오톡 선물하기

HANDMADE FOR YOUR PREMIUM

Wizard7

최적의 사이트 구축·운영·관리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기능 탑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각종 OS·DB·브라우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본기능

- | | | | | | | | |
|--|------------|--|---------|--|-------------|--|--------------|
| | HTML5(웹표준) | | 반응형웹 대응 | | WYSIWYG 에디터 | | 편집 모드/사용자 모드 |
| | 강력한 권한 설정 | | 파일관리 | | 웹 접근성 | | 다국어 지원 |
| | 높은 보안 | | 메뉴 관리 | | 백업/복구 | | 워크플로우 |

※기본 기능의 일부를 기재

모듈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자유자재로 사이트 구축

- | | | | | | | | |
|--|--------|--|----------|--|-------|--|---------|
| | 게시판/뉴스 | | 이미지 슬라이드 | | 인물 소개 | | 풀빌더 |
| | 일정관리 | | 규정관리 | | 연혁 관리 | | 회원정보 수정 |

※상기 외 모듈의 다양한 기능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를 위한 추가 솔루션



S3 : eBMS

간행물 e북화 통합관리 솔루션



S3 : HTML Converter

첨부파일 바로보기 솔루션

케이투웹테크(주)
www.k2web.co.kr

서울 금천구 가마산로 96 1510(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8차)
메일문의 : shlee012@k2web.co.kr / 상담시간 : 09:00 ~ 18:00

02-575-7721